

# 支石墓의 葬送儀禮

李 相 吉\*

## 目 次

- I. 머리 말
- II. 자료의 검토

- III. 매장례의 복원
- IV. 맺음 말

## I. 머 리 말

支石墓를 포함한 청동기시대 墳墓에 대한 지금까지의 研究는 주로 그 起源과 型式分類를 통한 編年에 치우쳐 왔다. 支石墓의 性格 究明이나 당시 社會의 構造 및 文化復元에 대한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것은 매우 단편적인 언급에 불과하거나 또는 논리적인 비약이 심하여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다. 本稿에서는 이러한 지금까지의 研究方向과는 달리, 墳墓로서의 支石墓가 가지는 여러 측면 중에서 埋葬을 둘러싼 儀禮行爲 - 이를 통칭하여 葬送儀禮로 부르고자 한다 - 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가지의 사건 - 출생, 성인식, 결혼, 죽음, 제사 등 - 을 겪게 된다. 이러한 하나하나의 사건에서 각기 다른 모습의 儀式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儀式은 개인이 한 지위에서 다른 지위로 통과해 가는 과정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sup>1)</sup>. 이 가운데 現世에 있어서의 生을 마감하는 죽음은 人生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며 피할수 없는 것으로, 이것에 대응하는 방법이 葬送儀禮이다. 죽음은 단지 個人的인 것이 아니라 社會的인 存在로서의 個人이 죽는 것이며, 따라서 葬送儀禮도 社會的인 制度가 되는 것이다<sup>2)</sup>. 古代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죽음에 대한 인간의 認識은 “죽음은 共有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이는 死者 자신의 생각인 동시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생각이기도 하였다. 客死나 알려지지 않은 죽음이 가장 불행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죽음이 共有의 범주에서 벗어난 죽음이기 때문인 것이다.

\* 慶南大學校 博物館

- 1) A. Van Gennep 저/전경수 역, 『통과의례 - 태어나면서부터 죽은 후까지 -』, 을유문화사, 1992
- 2) 大林太良, 『葬制の起源』(角川選書 92), 角川書店, 1977

이와같은 죽음의 결과로써 나타나는 考古學的 증거물인 墳墓에는 社會的 制度인 儀禮行爲가 스며들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行爲- 儀禮- 그 자체는 考古學的으로 흔적을 남기기 어렵고, 어떤 경우에는 墳墓 자체도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있다<sup>3)</sup>. 그것이 비록 考古學的인 증거물로 남아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죽음에 대한 認識을 가지고 어떠한 行爲로써 그 죽음을 마무리할 때 그 속에는 來世觀을 비롯한 다양한 觀念이 포함되어 있음을 否定할 수 없으며, 이러한 觀念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표출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비록 그 단편적인 흔적만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墳墓로서의 支石墓에서 확인되는 자료를 토대로 埋葬을 둘러싼 儀禮行爲에 대한 復元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 Ⅱ. 資料의 檢討

실제로 현장에서 발굴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의외의 장소에서 유물이나 유구가 출토되는 것을 보고 당혹해 하는 경우가 많다. 발굴조사 과정에서 매장과 관련된 의례·신앙의 측면은 『韓國支石墓研究』이래<sup>4)</sup>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단편적으로 지적되어 오고 있다. 여기에서는 여러 유적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그 상태를 살펴보고 이를 유형화시켜 보고자 한다<sup>5)</sup>.

### 1. 관련유적의 검토

#### 1) 陝川 山浦遺蹟<sup>6)</sup>

慶南 居昌郡 南下面 武陵里 山浦마을에 위치하는 지석묘군이다. 모두 33基의 유구가 확인

- 3) 風葬 같은 것이 그 예가 될 것이다. 한편 필자가 창원 덕천리유적을 발굴할 당시 덕천마을 입구에 있는 돌을 들어내고 그 아래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때 마을의 할머니 한 분이 사기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와서 그릇채로 돌에 던져 박살을 내면서 무슨 주문을 외는 것을 보게 되었다. 당시의 생각에 그러한 행위가 일종의 儀禮이고 결국 나중에 남는 것은 돌 주위에 흩어진 사기편 만이 그 증거일 뿐이라 여겨졌다.
- 4) 김재원·윤무병, 『韓國支石墓研究』(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6책), 1967,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支石墓를 발굴하면 그 內部가 아닌 주위에서 赤褐色 無文土器의 破片들이 자주 발견되며, 그것이 때로는 數十片씩이나 되는 다수가 출토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들은 墳墓造成後 舉行된 儀禮에 사용하고 버린 土器의 破片들이거나...”(p.12)라고 기록하고 있다. 대체로 발굴과정에서 특이한 경우로 보아 儀禮나 葬送으로 인식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 ① 주변에서 특이할 정도로 유물이 많은 경우. ②주거지도 없는데 일상용 석기가 많거나 그을음이 붙은 토기가 있는 경우. ③유구의 방향이 특이한 경우(물흐르는 방향 또는 동쪽 등). ④유구 내부에 붉은 흙을 채우거나 흉도를 부장-僻邪의 의미. ⑤지석묘의 특이한 구조-계단고인돌 등.
- 5) 이 글의 제목을 “지석묘의...”라고 하였으나 여기에서 검토대상으로 삼은 유적은 좁은 의미에서의 ‘지석묘’가 아니고 청동기시대의 墳墓라는 입장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지석묘가 반드시 개개의 上石을 갖춘 것만이라고 보고 있지 않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別稿를 통해 검토하기로 하겠다.
- 6) 임효택·곽동철·조현복, 『居昌, 陝川 큰돌무덤』, 동의대학교 박물관, 1987

되었는데, 동서로 5열을 이루고 있어 주목된다. 대부분 독립된 方形的 墓域을 갖추고 있으며, 이 가운데 22기는 지하에서는 埋葬主體가 확인되지 않는 구조이다.

출토유물은 매우 빈약한 편인데, 3호의 경우처럼 ‘類似石槨’ 부분에서 유물이 출토되는 경우 이를 지하식 매장주체부에서의 副葬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 대부분의 유물이 敷石-報告者는 이를 鋪石이라 한다- 내부나 상석 주변에서 출토되었는데, 無文土器 底部片이 반드시 들어있는 점이 특징이다. 유물의 종류는 무문토기 구연 및 저부편, 단도마연토기편, 砥石片, 반월형석도편 등이다.

### 2) 陝川 苧浦里 E地區遺蹟<sup>7)</sup>

慶南 陝川郡 鳳山面 苧浦里에 위치한다. 이 일대에서 모두 9개의 上石이 확인되었으나 일부는 遊離된 상태였다. 8基의 유구가 조사되었는데, 대체로 2열로 배열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方形的 墓域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5호는 완벽한 方形的 敷石이 남아 있다.

유물은 대부분 敷石사이나 주변, 유구내 埋沒土 속, 墓壙과 壁體 사이의 充填土 내에서 검출되고 있다. 유물의 종류는 무문 및 단도마연토기편, 석검편, 반월형석도(편), 석촉(편), 방추차편 등이다. 이 가운데 5호의 경우 유구내부 埋沒土 속에서 수습되는 단도마연토기편과 敷石사이 출토품이 동일개체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7호의 充填土내에서는 완형의 반월형석도가 벽 바깥쪽에 기대어져 있어 意圖的인 埋納임이 분명하다. 무문토기는 대체로 구연이나 저부편만 보이고 있다.

### 3) 咸安 道項里遺蹟<sup>8)</sup>

慶南 咸安郡 加耶邑 道項里에 위치한다. 도항리·말산리 고분군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同心圓 등이 새겨진 岩刻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 암각석이 고분(34호)의 봉토에 속해 있으므로 그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고분의 아래 및 주위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1기를 비롯한 다수의 분묘가 확인되었다. 모두 8基의 유구가 조사되었는데, 이 가운데 가號를 제외하고는 모두 墓域施設 내에 축조되어 있었다.

유구내부 부장유물 외에 敷石사이나 敷石위 퇴적토 속에서 무문 및 단도마연토기편을 비롯하여 砥石, 礮石, 石鑿, 半月形石刀, 石斧 등 다수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특히 부석사이에서는 세로로 절반이 缺失된 무문토기가 엮어진 상태로 출토되어 意圖的인 埋納을 확인할 수 있었다.

7) 부산대학교 박물관, 『陝川 苧浦里 E地區遺蹟』, 1987

8) 최현섭, 『咸安 道項里 先史遺蹟』, 『韓國上古史學報』 10, 한국상고사학회, 1992

#### 4) 泗川 所谷里遺蹟<sup>9)</sup>

경남 사천군 정동면 소곡리에 위치한다. 方形 또는 圓形의 墓域이 갖추어져 있으며, 12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圓形墓域의 경우 내부에 1기의 매장시설이 있으나 方形墓域 내에는 다수의 유구가 존재하고 있다. 현재 노출된 전체가 하나의 묘역이 아니고 일정한 크기의 묘역이 서로 접하여 전체가 커다란 하나로 보이게 된 것 같다<sup>10)</sup>.

유구 내에서 약간의 토기편이 출토되고 있으나 부장품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 밖의 유물은 대체로 敷石의 한쪽부분에서 집중적으로 검출되었는데, 무문토기편이 대부분이다. 전체 무문토기편 가운데 구연부 10%, 동체부 50%, 저부 40% 정도로 구연부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점이 특이하다. 片들은 모두 의도적으로 잘게 부서진 상태이며, 그을음이 부착된 예도 있어 부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들이 한 장소에 의도적으로 破碎, 投棄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5) 晉陽 大坪里遺蹟<sup>11)</sup>

경남 진주시 대평면 대평리 일대에 분포하는 유적이다. 方形의 墓域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 주위에는 독립된 石棺이 배치되어 있다.

유물은 대체로 敷石이나 그 주변에서 수습되는데, 내부 부장유물에 비해 그 수가 많고 유물의 종류도 다양하다. 특히 玉房 10호, 11호의 경우 주변에 數百片의 토기편이 수습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의도적으로 한 장소에 破碎하였음이 분명하다.

#### 6) 麗川 月內洞遺蹟<sup>12)</sup>

전남 여천시 월내동에 위치한다. 모두 30基의 유구가 조사되었는데, 거의 모든 유구가 墓域을 갖추고 있다. 전체유구 가운데 거의 중앙부에 해당되는 16호의 경우 지하에서 매장시설이 확인되지 않고 地表上에 積石과 上石만 노출되어 있어 단순히 매장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묘역은 지식묘 축조당시 노출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서로 연결해 있기는 하나 상호 묘역간에 파괴, 침범이 없었던 점에서 神聖域으로 機能하였던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유물은 유구 내부의 부장품 외에 대부분의 묘역 또는 주변에서 수습되고 있다. 특히 매장 유구가 없는 곳에서도 주거 등 생활유적과 관계없이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고 있어 이들 유물이 埋葬과 관련된 所産임을 짐작케 한다. 대부분의 유구에서 무문 및 단도마연토기의 동체와 저부편만이 수습되는데, 다른 유적에 비해 단도마연토기편이 많은 점이 특징이다. 무문토기

9) 단국대학교 박물관, 『소곡리 신월의 청동기시대 무덤』, 단국대학교박물관 고적 조사보고 제 11책, 1988

10) 이와 유사한 예는 1992년에 경북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사한 대구 상인동유적에 서도 확인되고 있다(보고서는 未刊임).

11) 문화재연구소, 『晉陽 大坪里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1994

12) 국립광주박물관, 『여천 월내동 고인돌』, 1992

저부편 가운데에는 구멍이 뚫려있고 그을음이 부착된 예도 있어 주목된다. 구멍은 燒成後 바깥쪽에서 안쪽을 향해 뚫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 외에 砥石, 石斧, 石鑿 등 生活用具와 石劍, 石鏃 등의 武具類가 있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半破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한편 2·9호와 18·22호의 묘역에서 각기 半破된 상태로 출토된 갈돌이 서로 접합되는 한 個體임이 확인되어 주목된다. 이러한 양상은 당시에 갈돌을 半分하여 서로 떨어져 있는 각기의 묘역에 던져넣었음이 분명한 것으로, 意圖的인 破損의 좋은 예를 보여주는 동시에 양 유구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여 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7) 麗川 平呂洞遺蹟<sup>13)</sup>

전남 여천시 평여동 산본마을에 위치한다. 3개 群에서 모두 28基의 유구가 조사되었는데 이 가운데에서 상부에 上石이 있었던 것이 12基, 上石이 없이 매장시설만 확인된 것이 16基이다. 가-1호에서는 方形, 다-3호에서는 橢圓形의 墓域이 갖추어져 있었고, 부분적으로 積石되어 있는 예가 일부 있으나 그 區劃이 뚜렷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3개의 群 가운데에는 각기 1기의 대형상석이 존재하는데 나, 다群에서는 하부에 매장시설이 없이 상석과 적석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분묘가 아닌 다른 의미를 가진 유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구내부 부장유물 외에도 적석사이나 充墳土 속, 내부 埋沒土 속, 개석사이, 주변 등에서 무문토기편을 비롯한 다수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가-1호의 充墳土 속에서는 完形의 有溝石斧가 날이 아래로 향한채 세워진 상태로 출토되었고 가-3호 벽석 사이에서 石鑿이, 그리고 가-8호에서는 充墳土 속의 무문토기 저부편이 내부 매몰토 속의 저부편과 동일한 개체임이 확인되는 등 의도적인 매납의 양상이 다수 확인되었다. 한편 이 유적에서는 다량의 玉이 출토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다-2,3호의 경우 유구 내부의 부장외에 벽석 사이나 充墳土 속에서도 다수의 玉이 출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 8) 麗川 積良洞遺蹟<sup>14)</sup>

전남 여천시 적량동 상적마을에 위치한다. 모두 29基의 유구가 조사되었는데, 그 중 26基는 상석이 없는 상태에서 매장시설만 확인된 것이다. 대개의 경우 유구 주위에 積石의 墓域이 갖추어져 있는데, 가장자리를 區劃한 독립된 묘역내에 1기의 유구가 있는 경우와 여러 기의 유구가 공존하는 경우가 있다. 後者의 예는 大邱 大鳳洞 4區 1지석묘에서 확인된 바 있다<sup>15)</sup>. 한편 積石施設없이 단독으로 매장시설만 존재하는 예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예는 거창 산포, 함천 저포리, 대구 상인동, 진양 대평리 등 여러 유적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유적에서도 대형의 상석하에 매장시설없이 적석만 존재하고, 그 주위에서 많은 토기편이 수습

13) 이영문·최인선·정기진, 『麗川 平呂洞 산본 支石墓』, 전남대학교 박물관, 1993

14) 이영문·정기진, 『麗川 積良洞 상적 支石墓』, 전남대학교 박물관, 1993

15) 윤용진 외, 『大邱 大鳳洞 支石墓 - 再發掘 調查報告』, 경북대학교 박물관, 1991

되고 있는 경우가 확인된다.

유물은 대체로 적석사이나 유구 주변, 내부 매몰토 속에서 수습되는데, 무문토기편과 石材片이 반드시 共存하고 있는 점이 다른 유적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2호 주변의 적석에서는 有溝石斧片, 砥石片, 石材片을 비롯하여 200여점의 무문토기편이 출토되었고 15호의 내부 매몰토 속에서는 서벽쪽에 집중되어 30여점의 무문 및 단도마연토기편이 출토되고 있다. 이외에도 7호의 적석 사이에서 동일한 개체의 砥石이 의도적으로 파괴되어 수습되었고 9호의 경우 石鑿이 적석 끝에 기대어진 채로 세워져 있어 의도적인 매납양상을 보여준다.

한편 이 유적에서는 다수의 청동기가 출토되어 주목되는데, 전체를 6개 구역으로 나눌 경우 각 구역의 한 유구에서만 청동기가 출토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이 가운데 5개의 유구에서는 비파형동검의 鋒部 또는 莖部の 일부편만이 출토되고 있다. 분명하지는 않으나 이들 일부편이 동일 개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이러한 점은 유물의 副葬과 관련된 意識의 일면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된다.

#### 9) 突山 世救地遺蹟<sup>16)</sup>

전남 여천군 돌산읍 우두리 세구지마을에 위치한다. 3기의 지석묘와 1기의 제사관련 유구가 조사되었다. 2기의 지석묘는 지하에 매장시설이 있으며, 별개로 구획된 묘역을 갖추고 있다. 祭祀遺構는 지석묘군의 중앙에 위치하는 것으로, 자연암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북방식 지석묘의 석실과 비슷한 형태이다. 내부에서 무문토기편과 지석편 등의 유물이 수습되었는데, 매장과 관련된 儀式的 소산으로 파악되고 있다.

#### 10) 光陽 元月里遺蹟<sup>17)</sup>

전남 광양군 옥곡면 원월리 하선마을에 위치한다. 5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는데, 方形的 墓域을 갖춘 경우와 積石만 있는 경우, 그리고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1호의 유구내부 埋沒土 속에서는 미완성 石劍과 鋒部가 결실된 석검, 단도마연토기편이 출토되었다. 또한 이 유구의 積石 주변에서는 17개의 砥石片과 무문토기편이 집중적으로 출토되어 주목된다<sup>18)</sup>.

16) 조현종·장계근, 『突山 世救地 遺蹟』, 국립광주박물관, 1994

17) 임영진·최인선, 『光陽 元月里 支石墓群』, 전남대학교 박물관, 1994

18) 유구 내부에서 미완성의 석검이 출토되고 있고 주변에서 많은 砥石片이 출토되는 점을 들어 報告者는 이 무덤의 피장자가 石器를 전문적으로 제작한 匠人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나아가 지석묘가 지배계급만의 專有物이 아니며 장인집단들도 축적된 富를 이용하여 지석묘를 축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보다 나은 대우를 받았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주 18) 앞의 책 pp. 32-33. 그러나 지석묘의 주위에서 儀禮와 관련되어 출토되는 유물은 대부분 實生活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 유구에서 특별히 지석편이 많이 출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장자의 신분을 그와같이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본다. 산포유적의 경우 거의 모든 유구에서 무문토기 저부편만이 출토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무문 및 단도마연토기편이 공통적으로 출토되는 외에 여천 적량동에서는 石材片, 보성 죽산리 다群유적에서는 漁網錘, 승주 우산리 내우와 대광리 신기유적에서는 石鏃(片), 여천 월내동에서는 갈돌 등 지역에 따라 특정 유물이 많이 보이는 현상은 피장자의 신분보다는 오히려 해당 지역집단의 嗜好와 관계가 깊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도 주변에서 有溝石斧, 石斧, 石鏃, 紡錘車와 무문토기편 등이 수습되고 있다.

11) 昇州 牛山里 곡천遺蹟<sup>19)</sup>

전남 승주군 송광면 우산리 곡천마을에 위치한다. 모두 14基의 유구가 조사되었는데 전체가 4열을 이루고 있다. 대부분의 유구주변에서 무문토기편을 비롯한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무문토기편은 底部와 胴體部片만 보이며 그을음이 부착된 경우가 많다. 유구내부 埋沒土 속에서 有溝石斧, 石斧, 砥石 등의 석기류가 1점씩 출토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모두 半破된 상태이다.

12) 昇州 牛山里 내우遺蹟<sup>20)</sup>

전남 승주군 송광면 우산리 내우마을에 위치한다. 모두 58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는데, 주위에 墓域이 區劃되어 있거나 단순히 積石만 있는 등 다양하다. 대체로는 하나의 上石 아래에 1개의 매장시설이 있다.

유구 내부에 부장된 유물외에 주위에서 무문토기편을 비롯한 석기류들이 다수 출토되고 있다. 특히 3호와 27호에서는 유구의 모서리에 石劍이 꽂힌 상태로 출토되어 특이한 부장양상을 보여준다<sup>21)</sup>. 24호의 充墳土 속에서는 彩文土器 1개체분이 출토되었다. 한편 이 유적에서는 유구 내부 매몰토 속이나 적석 사이에서 石鏃片이 출토되는 예가 많은데, 이러한 점은 다른 유적과 구분되는 특이한 것으로 주목된다. 보고자 역시 이 주변출토 유물에 대해 애도의 뜻이 담긴 葬送用이나 祭儀用으로 파악하고 있다.

13) 昇州 大光里 신기遺蹟<sup>22)</sup>

전남 승주군 주암면 대광리 신기마을에 위치한다. 19기의 지석묘가 조사되었다. 내부 매몰토 속, 개석주위나 틈, 그리고 유구주변에서 무문토기편을 비롯하여 石鏃, 有溝石斧, 砥石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12호의 개석 상부에서는 무문토기 小壺 1개체분이 출토되었는데, 報告者는 개석을 덮은 다음에 祭儀用으로 뿌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이 유적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유구주변에서 석촉편이 출토되어 특이한 매장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19) 이용조·이석린·하문식·우종윤, 「牛山里 곡천 고인돌」, 『주암댐 수몰지역 문화 유적 발굴조사보고서(Ⅱ)』, 전남대학교 박물관, 1988

20) 송정현·이영문, 「牛山里 내우 支石墓」, 주 20) 위의 책.

21) 이러한 부장의 예는 우산리 곡천 1-3호(充墳土 內), 승주 대치리 2호(充墳土 內), 창원 덕천리 11호, 승주 유평리 유천 1호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석검 부장의 특이한 예이다. 이와같이 석검이 세워진 상태로 부장되는 경우 외에 充墳土 속에서 완형의 석검이 출토되는 예도 여러 유적에서 확인되고 있다.

22) 이청규, 「大光里 신기 고인돌」, 『주암댐 수몰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Ⅰ)』, 전남대학교 박물관, 1987

#### 14) 寶城 竹山里 '다' 群遺蹟<sup>23)</sup>

전남 보성군 문덕면 죽산리 하죽마을에 위치한다. 모두 31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는데 강의 흐름과 나란하게 3열로 배치되어 있다. 이 가운데 매장주체가 石槨形인 경우는 모두 가장자리가 區劃된 墓域을 갖추고 있다. 유구내부 부장유물외에 적석 사이나 유구 주변에서 무문토기편을 비롯하여 石鏃, 半月形石刀, 石斧, 石鑿, 砥石, 漁網錘, 紡錘車, 礮石 등 다수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5호와 13호 주변에서는 동일개체로 인정되는 단도마연토기편이 수습되었고 11호 개석사이에서는 礮石이 3분된 상태로 출토되어 의도적인 매납양상을 보여준다. 한편 이 유적에서는 여러 유구의 주위에서 각 1점씩의 어망추가 출토되고 있어 다른 유적과 구별되는 특이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 15) 昇州 大峙里遺蹟<sup>24)</sup>

전남 승주군 황전면 대치리 대치마을에 위치한다. 지석묘 7기와 上石이 없이 매장주체시설만 있는 석곽 등 모두 12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7기의 지석묘는 긴 타원형으로 배치되어 있고 그 가운데에 上石이 없는 석곽이 있는 특이한 배치를 보여주고 있다. 지석묘 가운데 上石이 가장 크고 북쪽 끝에 있는 7호에서만 매장시설이 확인되지 않고 지석 주위에서 동일한 개체로 인정되는 10여점의 무문토기편이 출토되고 있어 다른 지석묘와 구분되는 특별한 의미를 示唆하고 있다.

유구의 내부와 주위에서 무문토기편을 비롯한 다수의 유물이 출토되고 있는데, 이 유적에서 출토된 4점의 마제석검 가운데 3점은 유구 내부가 아닌 充塡土 속에서 출토되고 있어 특이한 부장양상을 보여준다. 한편 A호 석곽의 외곽에서 수습된 3점의 무문토기편과 석촉의 身部片이 각각 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2점의 무문토기편 및 석촉 鋒部片과 동일한 개체임이 인정되어 의도적인 매납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 16) 康津 永福里遺蹟<sup>25)</sup>

전남 강진군 칠량면 영복리에 위치한다. 3개의 지구에서 모두 12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특히 A지구는 15개 가량의 上石이 9호를 중심으로 타원형을 이루면서 늘어서 있는데, 9호 上石이 이 가운데에서 가장 크고 매장주체시설도 9호를 향해서 3열로 배치되어 있었다. 또한 9호 주변에서 토기편을 비롯한 다량의 유물이 집중되고 있어 다른 유구와 구분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유구의 내부에 부장된 유물은 1점도 확인되지 않은 반면에 유구주변, 특히 9호 주변에서 다량의 유물이 출토된 점은 주목할 만 하다. 여기에서는 500여점의 무문토기편이 출토되었

23) 송정현·이영문, 「竹山里 '다' 群 支石墓」, 『주암댐 수몰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Ⅲ)』, 전남대학교 박물관, 1988

24) 임영진, 『昇州 大峙里 支石墓群』, 전남대학교 박물관, 1991

25) 서성훈·이영문, 『康津 永福里 支石墓 發掘調査報告書』, 국립광주박물관, 1983



는데, 저부에 비해 동부나 구연부가 훨씬 적어 단순한 매납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석기류 역시 대부분 實生活用이며 이들 또한 파손된 것이 많은 점도 이들 유물의 성격을 이해하는 근거가 된다. 報告者 역시 이 유물들이 祭儀나 饗宴에 이용되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이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점에서 이러한 祭儀나 饗宴이 특정한 장소에서 행해졌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 本稿의 대상이 되는 중요 유적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이 외에도 提原 黃石里 遺蹟<sup>26)</sup>, 谷城 拱北里 遺蹟<sup>27)</sup> 등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유적이 많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일단 남부지방(황강, 남강, 전남해안, 보성강 일대)으로 한정하였다. 이 검토 과정에서는 첫째, ‘副葬用’과 ‘祭儀用’을 구분하였다. 부장도 넓은 의미에서는 의례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 문제는 차후에 검토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일단 ‘屍身の安置와 동시에 그에 隨伴해서 함께 묻은 유물’ 외의 것만을 다루었다. 둘째, 유구내부 매몰토 속에서 출토된 유물은 부장과는 다른 의미를 부여하였다. 여러 유적을 검토해 본 바 시신을 안치한 후 유구내부를 빈 공간으로 두는 경우도 있었으나 때로는 돌이나 특정 흙으로 채우는 경우가 다수 인정된다. 또한 여러 정황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쏟려 들어갔다’고 볼 수 없는 출토례도 많다. 따라서 이런 경우도 시신안치 후 내부를 채우면서 의도적으로 매납한 것으로 보아 일단 儀禮로 파악하였다. 셋째, 報告者가 ‘유구 주변’이라 표현한 경우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일단 검토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 2. 支石墓의 築造過程

墳墓를 통해서 儀禮의 全過程을 추적하고자 하는 경우 墓地의 선정에서 부터 埋葬이 완료되고 난 이후까지의 전과정이 물질적으로 잘 남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발굴을 통해서 그 全貌를 소상하게 밝히기에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 다만 현존하는 자료 속에 그러한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는 수 밖에 없다.

여기에서는 현재까지 조사된 여러 예를 참고로 하여 지석묘의 축조 전과정을 하나의 이상적인 모델로서 상정하고자 한다<sup>28)</sup>.

### 1) 墓地의 選定(立地)

대체로 자연지리적인 조건을 고려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경우 墳墓들이 한 지역에 群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개개분묘 造成者의 문제라기 보다는 집단 전체의 문제이

26) 이용조·우종윤, 「황석리 고인돌문화의 묻기방법에 관한 한 고찰」, 『博物館紀要』 4, 단국대학교 박물관, 1988.

27) 주 4) 앞의 책 pp.152-163

28) 본고의 목적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상석이나 묘역시설까지 포함된 가장 ‘완전한’ 형태의 유구를 상정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유구의 구조적인 문제를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예를 들어 묘역내의 유물과 상석 주변의 것이 동일시될 수는 있는 것이다.

다. 물질적인 증거는 확인하기 어렵다.

## 2) 墓域의 整地

전체 묘역에 대한 整地는 당연히 인정되며 개개 분묘에 대해서도 가능한 과정이다. 후대의 자료로 볼 때 儀禮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 3) 採石 및 上石의 移動

여러 연구자에 의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지석묘 전반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도 일정한 의례가 행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 장소가 매장과 직접 관련된 곳이 아니므로 확인하기 어렵다.

## 4) 埋葬主體施設의 築造

(지하식의 경우) 墓壙을 파고 壁을 축조하는 과정이다. 매장과정 속에서 屍身의 매납 이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의례의 예는 다수 확인되고 있다. 다만 2)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작업에 필요한 실물도구와 의례용 유물과의 구분, 혹은 도구의 기능의 변화(실질적인 도구→의례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5) 埋葬

屍身을 옮겨와서 安置하는 행위이다. 이와 동시에 유물이 매납되는 경우를 ‘副葬’으로 본다<sup>29)</sup>.

## 6) 유구내부 채우기

전체 유적에서 반드시 이루어진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나 여러 유적에서 인정된다. 유구 내부에 돌이나 흙을 채우는데, 흙의 경우는 自然流入과 구분이 애매한 경우도 있다. 유물출토상태로 보아 의도적인 유물의 投棄가 인정된다.

## 7) 개석덮기

매장 이후의 과정으로, 개석을 덮는 중이거나 덮고난 직후에 의례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 8) 支石/上石놓기

대개의 경우 개개 유구에서 이루어지나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유구가 하나의 上石을 共有하기도 한다. 後者의 경우 이 과정은 그 순서를 가늠하기가 곤란하다.

## 9) 墓域(數石, 鋪石 등)의 設置

순서상 가장 늦을 것으로 생각되나 완충역할의 적석을 고려하면 이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29) 경우에 따라 棺(槨)外 副葬도 인정이 되므로 이 경우는 副葬과 (의례용)埋納을 명쾌하게 구분하기가 곤란하다.

경우도 있을 것이다. 축조가 완료된 이후의 모든 의례는 이 공간을 중심으로 행해 질 것이다. 따로 묘역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는 상석 주위에서 동일한 행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 3. 出土遺物의 分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支石墓의 築造過程과 유물의 출토위치를 고려할 때 각 유구에서 出土되는 遺物은 다음과 같이 크게 6개 群으로 나눌 수 있다.

- 1) 바닥돌 아래, 墓壙과 壁石사이(충진토 속), 壁石사이
- 2) 바닥돌 위 → 부장
- 3) 內部 埋沒土 속
- 4) 蓋石사이(蓋石 直上部)
- 5) 支石 주변(上石 下)
- 6) 敷石(積石)사이, 上石 및 유구주변

1) 바닥돌 아래, 墓壙과 壁石사이, 壁石 틈

釋坪 5호, 저포 E-5·7·8호, 玉房 2·3·5호, 平呂洞 가-1·3호, 가-8호, 다-3호, 積良洞 7호, 月內洞 14·20·21호, 五林洞 6호 石槨, 大峙里 2·3호, A호 石槨, 竹山里 다-8호, 大鳳洞 4區 I-2호 石棺, III-3호 石槨, 牛山里 곡천 1-1호, 1-3호, 牛山里 내우 4-1호, 24호, 승주 대치리 2·3·A호에서 확인되었다.

埋納되는 遺物의 종류는 土器(片), 石斧, 石鑿, 砥石, 管玉, 石劍, 石鏃 등 다양하다. 이들 대부분은 壁石 틈에 끼여 있거나 墓壙과 壁石사이의 充墳土 속에 있는 경우가 보통이다. 저포E-7호에서는 벽의 외측에 반월형석도를 기대어 놓았고 平呂洞 가-1호의 墓壙과 壁石 사이에서 刃部가 아래로 향하게 세워진 有溝石斧가 出土되었다. 充墳土 속에 1個體分의 彩文土器가 埋納된 경우(牛山里 내우 24호)나 1個體分의 石劍片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五林洞 6호 石槨)도 있다. 승주 대치리유적에서는 3기의 유구 充墳土 속에서 모두 석검이 출토되었다. 築造 당시 바닥돌을 먼저 깔고 그 위에 壁石을 쌓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경우 바닥돌 가장자리이면서 壁 最下段石 아래에 管玉(平呂洞 다-3호), 無文土器 底部(月內洞 21호)가 놓여진 경우도 있다. 月內洞의 경우 無文土器 底部만을 따로 떼어 埋納하였는데, 이 土器의 바닥에 구멍(孔)이 뚫려 있다<sup>30)</sup>. 平呂洞 가-8호에서는 墓壙의 補強石 아래에서 無文土器가 수습되었는데, 이와 동일한 개체의 것이 유구내부에서도 檢出된 바 있어 1개체의 土器片이 時差와 機能(用途)을 달리하면서 埋納된 例를 보여준다.

30) 이처럼 의례에 사용된 토기의 바닥에 구멍이 뚫린 예는 창원 덕천리 1호, 대덕 내동리에서 확인되고 있다. 비슷한 예가 송국리 옹관에서도 보이거나 이와는 조금 다르다고 본다.

## 2) 바닥 위

일반적으로 副葬이라 불리우는 가장 보편적인 양상이다. 그러나 단순히 副葬이라 하더라도 埋納된 상태나 위치·副葬遺物의 특징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특이한 副葬品の 예로는 제원 黃石里 忠 6호의 사슴 위팔뚝, 忠 7호 머리맡의 소뼈가 있다<sup>31)</sup>. 또한 副葬된 石劍이나 銅劍이 完形이 아니고 원래 부러진 상태(月山里 사비 5호, 積良洞 9·13호)이거나 미완성품(元月里 1호)인 경우도 있다.

玉은 支石墓의 副葬品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통 장신구로 패용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그 부장양상에 있어서 몇가지 특징이 있다. 玉房 2호에서는 管玉을 두 토막으로 깨어서 흩어 넣었고, 平呂洞 다-2호에서는 유구바닥 전면에 管玉 29점과 小玉 253점이 흩어져 있었다. 또한 平呂洞 다-3호에서는 丸玉 2점과 管玉 136점이 출토되었는데 管玉의 일부는 壁石 아래, 墓壙사이, 內部埋沒土中 등에까지 흩어져 있다. 이 兩者의 경우 屍身을 埋葬한 후 遺構의 全面에 玉을 뿌렸을 가능성이 크다.

石劍이나 석촉 역시 支石墓의 가장 일반적인 副葬品이다. 그러나 月內洞 8호, 내우 3호·27호, 柳坪里 유천 1호, 德川里 11호 등에서는 石劍이 유구 모서리 부분에 칼끝이 아래로 향한 채 세워져 있었고 곡천 2-4호에서는 석촉이 꽃힌 상태로 출토되었다. 또한 積良洞 22호 석실에서는 銅劍이 꽃힌 상태로 출토되었다.

## 3) 內部 埋沒土中

지금까지의 경우 遺構의 내부에서 遺物이 檢出되면 모두 副葬品과 동일하게 취급하거나 혹은 외부로부터 流入·攪亂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蓋石의 틈이 거의 없이 덮혀 있는데도 埋沒土中에는 매우 큰 遺物이 수습되는 경우가 많고, 또 遺構 내부에만 특별히 다른 흙이나 돌로 채워져 있거나 혹은 층이 매우 균일하여 돌이나 흙이 자연적으로 流入·埋沒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예가 많다. 積良洞 15호 石槨에서는 無文土器 및 丹塗磨研土器片 30여점이 집중적으로 출토되었고, 月內洞 20호에서는 연石과 石劍이, 五林洞 4호와 元月里 3호에서는 丹塗磨研土器 1개체분이 破碎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그리고 元月里 1호에서는 미완성 石劍 1점과 石劍 1점이, 山浦 3호·大峙里 A호 石槨·牛山里 내우 4-1호·내우 5호·내우 9호·내우 23호·내우 25호·月山里 사비 13호·竹山里 다-3호·다-8호·다-9호·다-11호·다-13호에서는 모두 석촉(片)이 출토되어 공통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內部 埋沒土中의 遺物이 자연적으로 쓸려들어간 것이 아니라 意圖的으로 埋納된 것임을 말해주는 가장 적극적인 증거는 苧浦E 5호, 昇州 大峙里 2호, 大峙里 A호 石槨, 月內洞 8호에서 확인된다. 이들 유구에서는 內部 埋沒土中에서 수습된 土器片이나 석촉편과 敷石사에서 출토된 土器片·석촉편이 서로 접합되거나 동일한 개체임이 판명되었다.

31) 주 26) 앞의 글.

#### 4) 蓋石사이(蓋石 直上部)

蓋石은 上部와 주변이 부식토와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경우 유물출토상태가 정확하게 파악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지금까지 알려진 例도 적은 편이다.

月內洞 1호(石斧), 月內洞 2-1호(無文土器片), 月內洞 13호(석촉편), 牛山里 내우 5호(三角形石刀), 竹山里 다-9호(石鑿)에서는 개석사이나 개석과 敷石의 틈에 끼어서 유물이 수습되었고, 月內洞 29-1호에서는 紡錘車 1점이 개석 위에 올려져 있었다. 竹山里 다-11호에서는 연석이 3분된 상태로 놓여져 있어 上石을 올리기 전에 意圖的으로 깨어서 埋納한 듯하다. 대광리 신기 12호의 개석 상부에는 무문토기 소호 1개체분이 파손된 상태로 놓여 있었는데, 報告者 역시 이 유물을 祭儀用으로 깨어서 뿌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平呂洞 가-5호는 二重蓋石인데, 上·下 蓋石사이에서 석촉 1점이 수습되었다. 이것은 개석을 덮는 과정에서 意圖的으로 석촉을 埋納하였다는 뚜렷한 증거가 된다.

#### 5) 支石 주변(上石 下)

上石의 아래인 支石 주변에서 檢出되는 유물 역시 지금까지 遺構 上部의 攪亂으로 파악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거의 주목되지 않았으며 언급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이 경우 다음에서 살펴볼 敷石 內 유물과 구분이 애매한 例도 있으나 支石 아래 또는 支石의 틈사이 그리고 支石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意味上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유물의 종류는 土器片(平呂洞 가-1호), 礮石(大峙里 4호, 竹山里 다-1호), 石鑿(내우 14호), 石鏃(유령리 유천 3호) 등 다양한데, 이들은 대개 支石에 끼워진 상태로 출토되고 있다. 한편 黃石里 총 17호에서는 支石 아래에서 石劍과 돼지 이빨이 출토되었고, 詩川里 살치 나-2호에서는 동일한 개체의 石劍 鋒部片과 柄部片이 支石을 중심으로 20cm 가량 떨어져 있었다. 大峙里 7호의 경우 支石 주변에서 底部를 포함한 10여편의 無文土器가 수습되었는데 1개체의 것으로 판단되었다.

#### 6) 墓域 內(敷石·積石사이 및 주변)

近者에 이르러 支石墓에 있어서 墓域의 존재가 종종 확인되면서, 墓域內 收拾遺物도 墳墓와 相關關係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 차츰 형성되고 있다. 墓域으로 인식되는 敷石(鋪石)이나 積石 또는 유구의 주변에서는 단순히 교란유물이라 보기에 그 양이 너무 많고 또 다양한 종류의 유물이 수습되고 있다. 가장 많이 출토되는 유물은 土器片인데 한두점에서 수백점까지 量에 차이가 있으며, 지역에 따른 종류·출토양상의 특징 등 여러 점에서 볼 때 意圖的인 投棄가 분명하다. 이러한 例는 墓域을 구비한 거의 대부분의 支石墓에서 확인되고 있다.

거창 山浦유적에서는 墓域을 가진 25基의 支石墓 가운데 23基의 墓域에서 유물이 수습되었다. 4호(石斧片)·19호(半月形石刀)·28호(砥石)를 제외하고는 모두 土器片만 있는데, 丹

塗磨研土器·無文土器의 底部가 거의 대부분이어서 이 유적에서의 특색있는 양상을 나타내어 준다. 이처럼 한 종류의 유물 또는 個體가 지역적인 특징으로 나타나는 예는 여천 積良洞 유적에서의 土器片과 격지(石材片), 竹山里 다地區 유적의 漁網錘가 있다. 山浦 4호에서는 지름 4cm, 높이 4cm의 小形土器도 檢出되었는데, 이러한 小形土器는 大邱 上仁洞 支石墓, 山浦 4호 등 여러 곳에서 확인되는 意圖的으로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土器의 多量 破碎·投棄의 대표적인 예는 진양 大坪里 2호·사천 소곡리 신월유적·積良洞 2호石槨·강진 영복리 9호 주변 등에서 확인된다. 大坪里 2호에서는 반파된 半月形石製品·砥石·漁網錘·紡錘車片과 함께 무수한 土器片이 출토되었는데, 출토상태로 보아 土器를 意圖的으로 깨어서 數石구역내 여기저기에 뿌린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소곡리 신월 유적에서는 200여편 이상이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는데 그 종류는 口緣部 10% 胴體部 50% 底部 40%로, 底部에 비해 口緣部가 매우 적다. 積良洞 2호 주변 積石에서는 有溝石斧·砥石과 함께 200여점의 無文土器片이 檢出되었고 제원 黃石里 2호에서도 100여편 이상의 無文土器片이 수습되었다.

유물을 깨어서 意圖的으로 投棄한 예는 금릉 松竹里(石斧 3分), 平呂洞 나-3호(석촉), 積良洞 7호 石槨(砥石), 竹山里 가-1호(石劍), 月內洞 26호(줄무늬돌) 등에서 확인되는데, 이는 한 개체의 유물을 깨어서 意圖的으로 한 곳에 埋納하거나 각기 다른 장소에 投棄하였다. 특히 月內洞 18·22호(연석)·月內洞 2·9호(연석)에서는 동일개체가 10m이상 떨어진 다른 유구에서 출토되어 意圖的으로 다른 墳墓에 投棄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동일개체가 時差를 달리하여 埋納되는 예는 大峙里 2호(無文土器)·5호(無文土器)·A호 石槨(無文土器, 석촉)·苧浦邑 5호(丹塗磨研土器)에서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數石에서 수습된 土器片과 遺構埋沒土中에서 수습된 片이 동일개체의 것임이 확인됨으로써 한 개체를 깨어서 時差를 두고 각기 다른 용도(기능)로 사용하였음이 인정된다.

墓域에의 投棄가운데 또 하나의 특징적인 예로 광양 元月里 1호를 들 수 있다. 이 유구의 數石 서쪽의 한 장소에서 파손된 砥石片 21개가 수습되었는데 이 중 일부는 서로 접합되기도 하였다. 이와같이 砥石만을 다량으로 投棄한 경우는 현재로서는 드문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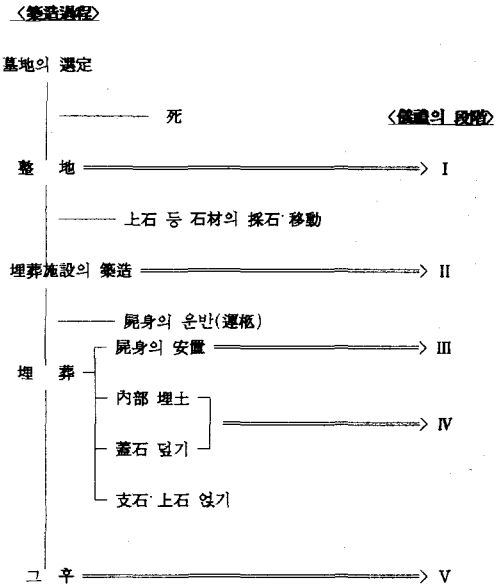
### Ⅲ. 儀禮의 復元 - 築造過程과 관련하여 -

죽음은 생명의 단절을 의미하기도 하나 神이 될 수 있는 일차적인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사건이다. 즉 죽음에 대한 認識을 가지고 墳墓를 조성한다는 것은 死後世界를 전제로 했을 때 가능하다. 어쨌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사건이며 이러한 죽음에는 不淨이 발생한다. 屍身은 살아있을 때와는 달리 부패하여 각종의 더러움을 수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물리적인 不淨은 나아가 영혼을 더럽히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不淨을 씻는 行爲가 필요하게 되며 이것이 바로 埋葬에 있어서의 儀禮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儀禮는 죽음에서부터 埋納에 이르기까지의 全過程 중에 1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이 “不淨”

을 인식하는 시점마다 행해진다고 여겨지므로 하나의 墳墓를 조성함에 있어서도 여러차례에 걸쳐 행해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앞에서의 검토를 참조하면서 支石墓의 築造에서부터 埋葬이 끝나고 儀禮가 終了되는 때까지를 圖式的으로 대비해 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드러나는 遺物의 출토상과 支石墓의 築造過程을 대비시켜 볼 때 위와 같이 다섯 段階에 걸쳐 儀禮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물론 墓域을 整地할 때에도 일정한 儀禮가 이루어질 수 있겠으나 이는 一個人의 죽음과는 무관하며, 묘역과 관련된 共同體 전체의 문제이므로 여기서는 일단 제외시키기로 한다.



◎ I 段階……〈整地儀禮〉

피장자가 사망한 후 무덤을 만들 자리를 고르고 주변을 정비할 때에 행해지는 儀禮이다. 이것은 물론 墳墓를 중심으로 본 시각으로, 屍身을 중심으로 본다면 이 일정기간-整地~築造-동안 어떠한 儀禮가 반드시 있을 것이나 확인하기 어렵다. 후대의 예로 보아 이 기간 동안에 屍身을 중심으로 해서는 殯 같은 것이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sup>32)</sup>. 이보다 늦은 시기의 예이기는 하나 武寧王陵의 買地卷에서는 墳墓를 築造함에 있어 地神에게 땅을 사는 形式을 취하고 있다. 또한 民俗例로서 出喪 前에 먼저 葬地를 구하고-이를 求山이라 한다-出喪 하루전에 山役을 한다. 이에 앞서 執事者는 墓地의 네 귀퉁이를 파서 標木을 세우고 土地神에게 告하는 祠土祭를 지내게 되는 것이다<sup>33)</sup>.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 당시에 墓域을 고르기 위해 최초로 땅을 파거나 지형을 변경하기 전에 地神에게 告하는 儀禮가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나 考古學的으로 증거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간혹 墳墓가 아닌 주변에서 土器片이나 木炭이 출토되고 있음이 이 整地儀禮와 관련될 가능성을 추측하게 할 뿐이다. 금릉 송죽리유적의 경우 묘역 외곽의 지반에 직경

32) 이 殯은 분묘가 아닌 별개의 장소에 설치되었을 것이므로 오히려 실생활유적의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지배계층의 경우 이 기간동안에 權力移動이 이루어져 새로운 지배질서가 성립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지배자의 장례는 死者에게 있어서 애도의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새로 등장하는 지배자를 축하하는 祝祭의 뜻도 가지게 되는 것이다.

33)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예절편), 1987

30cm 깊이 30cm크기의 구덩이를 파고 그 속에 석부를 세워둔 예가 확인되고 있다<sup>34)</sup>.

이러한 것이 整地儀禮와 관계가 있지 않을까 추측해 본다.

### ◎ II 段階……<築造儀禮>

본격적으로 땅을 파고 무덤을 만드는 작업시에 이루어지는 儀禮이다. 당시 社會의 技術이나 道具의 발달정도를 감안할 때 採石·移動에서 부터 墓壙의 掘土·築造에 이르는 이 過程은 매우 큰 役事임에 틀림이 없다.

이 段階의 儀禮는 크게 보아 “무덤의 견고함-悠久性-”과 “參與者의 不淨 씻기”의 의미로 大別할 수가 있는데, 현재 확인되는 대부분의 예는 前者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된 행위는 壁을 築造하는 과정에서 壁石사이에 管玉·石斧·石劍片·石鑿·土器片 등의 유물을 끼워두는 것으로 나타난다. 墓壙과 壁石사이도 유구를 築造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메워 나가게 되므로 이곳에 세워진 有溝石斧를 비롯하여 充墳土 内の 石劍·石鏃 및 土器片들도 같은 의미로 파악할 수 있겠다<sup>35)</sup>.

특히 平呂洞 가-8호에서는 墓壙의 補強石 아래에서 출토된 土器片과 동일개체의 것이 遺構內部에서도 출토되고 있다. 즉 築造儀禮時 깨뜨려서 사용한 土器의 片 일부를 그대로 보관했다가 나중에 屍身을 安置한 후의 儀禮時에 사용한 것이다.

後者에 해당되는 뚜렷한 예는 현재까지는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有氣物 資料가 비교적 많은 日本 彌生時代 墳墓(方形周溝墓 등)의 예로 볼 때 築造時에 사용했던 도구들을 墳墓주위의 일정한 장소-方形周溝墓의 경우 溝內-에 廢棄하는 行爲로써 나타나고 있다<sup>36)</sup>. 또한 儀禮의 前, 後에 沐浴齋戒를 하는 등의 행위도 동일한 맥락으로 파악할 수 있겠으나 고고학적인 증거는 남아있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墓壙이나 壁石사이에서 檢出되는 土器片은 墳墓의 築造作業에 참여한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했던 容器의 一部分일 가능성도 있다.

### ◎ III 段階……<埋葬儀禮①>

屍身을 遺構 내에 安置하면서 행하는 儀禮로, 葬送儀禮의 가장 중심이 되는 過程으로 볼 수 있다<sup>37)</sup>. 이 段階는 屍身과 함께 副葬品을 埋納하는 行爲로 이루어지는데, 黃石里 忠 6호

34) 계명대학교 박물관, 『개교 40주년 기념 금릉 송죽리유적 특별전 도록』, 1994. pp.54

35) 墓壙을 파는 작업과 壁을 쌓는 過程을 細分할 수 있을지도 모르나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곤란하므로 일단 동일한 過程으로 파악하여 둔다.

36) 현재 청동기시대 분묘에서 周溝가 확인된 예는 창원 덕천리밖에 없다. 덕천리 유적에서도 墓域인 동시에 周溝라 생각되는 石築의 溝內에서 토기편 등 다수의 유물이 확인되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당시 현장을 방문하였던 大阪大學 考古學研究室의 大庭重信씨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37) 墳墓의 築造와 관련시켜 볼 때 시신의 埋葬 이후 蓋石을 덮는데까지는 일련의 過程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으나 遺物埋納 樣相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므로 이를 두 단계로 구분하였다.



나 忠 7호의 동물뼈 출토예로 볼 때 犧牲儀禮가 행해졌을 가능성도 있다.

副葬되는 유물은 石劍·石鏃·丹塗磨研土器와 玉이 일반적이며 銅劍등의 靑銅器가 埋納되기도 하고 그 외에 紡錘車·漁網錘·石斧·砥石·半月形石刀 등이 副葬되는 경우도 가끔 있다. 그러나 대체로 볼 때 副葬品은 實生活用이 아니고 非實用的이며 儀禮的인 것이 대부분이다. 이들 副葬品의 종류로써 被葬者의 性別이나 身分을 파악하고자 하는 試圖도 있으나 개개 유물에 대한 意味가 검토되지 않고 있으므로 수용하기 어렵다<sup>38)</sup>.

副葬遺物 가운데 특이한 예는 平呂洞 다-2호·다-3호인데, 이 유구에서는 玉을 장신구로 패용한 외에 屍身의 全面에 뿌렸을 가능성이 높다<sup>39)</sup>. 또한 遺構의 모서리에 石劍을 꽂거나 세운 예가 다수 확인되고 있는데 이것 역시 특이한 부장예에 속하나 그 意味를 알기는 어렵다. 다만, 德川里 11호의 경우는 머리가 없는 시신을 埋葬하였다고 여겨지므로<sup>40)</sup> 혹시 “戰士의 무덤”에 있어서의 예우 같은 의미는 아닐까? 그리고 遺構의 바닥에서 10cm 가량 뜬 유물들이 있는데, 이는 屍身 위에 얹었던 것일 가능성이 높다.

#### ◎ IV 段階……<埋葬儀禮②>

屍身을 安置하고 遺物을 副葬한 다음부터 蓋石을 덮을 때까지 이루어지는 儀禮로, 屍身을 埋沒하는 最初의 行爲이다. 지금까지는 이 段階가 인정되지 않아, 유물들이 그저 內部로 流入·攪亂된 것으로 여겨져 왔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埋葬 당시에 意圖的으로 埋沒하는 例가 많음이 확인되었다<sup>41)</sup>.

이 단계의 儀禮時 사용되는 遺物은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月內洞에서는 土器片이 대부분이며, 竹山里, 大峙里에서는 대체로 석촉이 埋納되고 있다. 大峙里나 苧浦邑 5호에서는 內部出土品과 敷石出土品이 동일개체임이 확인되었는데, 이 경우 內部埋沒時에 주변에서는 墓域에 遺物을 投棄하는 行爲가 동시에 이루어졌거나 혹은 時差를 두고 행해졌을 것이다. 研究者에 따라서는 이 때 內部에 붉은 흙을 意圖的으로 채웠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sup>42)</sup>.

38) 李榮文은 銅劍·玉·石劍·丹塗磨研土器를 신분상징물로 상정하고 A급묘:靑銅劍이나 多量의 玉이 副葬, B급묘:石劍이나 丹塗磨研土器가 출토된 것과 1~2개의 玉이 출토, C급묘:副葬遺物이 없는 墓로 구분하고 있다. 이영문, 『全南地方 支石墓 社會의 研究』, 한국고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pp.276-281

39) 이 경우 장신구로 패용한 玉은 副葬品으로, 뿌린 玉은 儀禮에 사용된 것으로 각기 다르게 파악해야 하겠으나 출토위치에 따른 구분 외에는 현실적으로 분리시키기 어렵다.

40) 이상길, 「昌原 德川里遺蹟 發掘調査 概要」, 『古文化談叢』 제32집, 九州古文化研究會, 1994.

41) 昌原 德川里 1호의 경우는 거의 완전히 밀봉된 상태에서 노출되었는데 內部가 텅 비어 있으므로 木棺만을 넣고 아무것도 채우지 않았다. 반면에 5호의 경우 단도마연토기가 유구의 중간쯤에서 출토되었고 벽을 따라 기대어 세운 판석도 내부로 비스듬히 기운채 유지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매장당시 내부를 흙으로 채웠을 가능성이 높다.

42) 이용조, 「한국 고인돌사회와 그 儀式」, 『東方學志』 23·24, 1980.

◎ V 段階……<祭祀儀禮>

屍身の埋葬이 끝나고 蓋石을 덮고 支石을 놓은 후 上石을 올리는 行爲가 모두 마감된 이후에 행해지는 儀禮이다<sup>43)</sup>. 支石위에 上石을 올릴 때 보통 알려진 것 처럼 흙을 덮어 비스듬히 경사를 만드는 방법을 이용한다면 이 儀禮가 행해지는 시점은 蓋石을 덮고 난 후 일정한 공정을 거쳐야 하므로 埋葬儀禮와 일련의 過程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段階는 墳墓의 구성과 관련된 모든 조치가 완전히 끝난 후에야 행해질 수 있으며, 넓은 의미에서는 事後의 祭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 儀禮는 墓域이 있는 거의 대부분의 支石墓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山浦유적에서는 30여기의 遺構 가운데 3기에서만 副葬品이 출토된 데 반해 25기의 墓域에서 이 儀禮와 관련된 遺物이 檢出되고 있다. 이는 최후의 이 儀禮가 어느 정도 중시되고 일반화 되었던가를 斷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sup>44)</sup>.

이 祭祀儀禮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遺物의 破碎와 投棄行爲이다. 거의 대부분의 遺物이 完形이 아닌 破損品이며, 墓域의 全域 또는 특정부위에 집중되는 양상은 분명히 일정한 投棄行爲가 이루어졌음을 말해 준다. 이러한 일련의 行爲는 크게 보아 ① 한 개체를 한 장소에 그대로 破碎·投棄하는 경우, ② 한 개체를 破碎한 후 한 墓域內的 여기저기에 뿌리는 경우, ③ 한 개체를 破碎한 후 멀리 떨어진 다른 墓域에 각기 投棄하는 경우, ④ 여러 개체를 破碎하여 특정 부위만을 投棄하는 경우로 나눌수가 있다. 이 때 破碎·投棄되는 遺物은 石劍이나 丹塗磨研土器 등 副葬用(非實用)의 경우도 있기는 하나 無文土器·砥石·연석·半月形石刀·石斧·石材(박편) 등 實生活에 사용되는 遺物이 대부분이다. 砥石이나 연석의 경우 사용흔이 뚜렷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고, 無文土器도 住居址에서의 實生活品과 구분되지 않고, 어떤 경우는 그물음이 그대로 부착되어 있어 儀禮用으로 따로 제작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그러면 實生活에 사용하였거나 사용가능한 이러한 遺物들을 왜 破碎해서 投棄한 것일까? 土器底部에 구멍을 뚫은 예가 단적으로 말해주듯이 이러한 破碎行爲는 이들 遺物을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그 본래의 기능을 否定하는 것이며<sup>45)</sup>, 이의 投棄는 祭祀가 아니라 廢棄에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죽음에 대한 인간의 일반적인 認識은 그것이 곧 不淨을 의미하는 것이며, 따라서 葬送儀禮가 끝나는 이 마지막 場에서 그동안 사용해 왔던 모든 도구나 용기들을 모두 破碎·投棄함으로써 그러한 不淨을 씻고자 한 것은 아닐까?

43) 이 이전 支石을 놓는 過程이나 上石을 올릴 때 遺物이 投棄된 例도 볼 수 있으나, 이는 築造儀禮의 연장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44) 墓域은 지표상에 일정기간 드러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여러차례에 걸쳐 祭祀儀禮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현실적으로는 구분이 애매하므로 일단 事後의 모든 儀禮를 통틀어 파악하고자 한다. 이와같이 묘역시설이 축조당시 지표상에 드러나 있었음은 여천 월내동유적에서 확인된 바 있다. 주 13) 앞의 책, pp. 13-14.

45) 田代克己, 「いわゆる方形周溝墓の供獻土器について」, 『村構造と他界觀』(鳥越憲三郎博士古稀記念論文集), 雄山閣出版, 1985.

죽음은 생을 마감하는 것이며, 이러한 죽음을 통하여 死者 자신은 神格의 길로 들어섰다고 할 수가 있으나 살아 남은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히 떨칠 수 없는 恐怖이며 不淨한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儀禮後에 자신들의 몸을 씻는다는 것은 行爲으로써 육체적인 不淨을 제거하는 동시에, 거기에 사용되었던 물건들을 모두 破碎·投棄함으로써 不淨을 털어버리는 한편 공포감으로 부터 해방되고자 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일련의 行爲 이후 살아남은 이들은 死者 그 자체나 그의 죽음에 따르는 모든 公·私的인 책임과 의무에서 벗어나 다시금 새로운 자신의 생을 영위하고자 한 것이다. 결국 葬送儀禮는 “死者에 대한 슬픔”과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살아남은 자의 儀禮(行爲)이며, 死者의 죽음을 社會的으로 公認시킴으로써 그가 가졌던 社會的 地位나 役割, 財産 등을 온전하게 이어받을 수 있는 권리를 동시에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 IV. 맺 음 말

이상 청동기시대 墳墓 가운데 비교적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남부지방을 대상으로 하여 埋葬과 관련된 儀禮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이들 유물에 관해서는 비교적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報告 자체가 소략한 경우가 많아 자세한 분석을 진행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

儀禮는 當時人의 意識, 行爲와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실물자료를 통한 고고학적 접근에 많은 제약이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러 유적에서 부장용이 아닌 실용품이, 그것도 일반적인 부장위치가 아닌 곳에서 빈번하게 출토되고 있음은 그 단면을 시사하고 있다. 儀禮專用의 유물이 출토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며 의례행위에 轉用된 유물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전체적으로 토기를 破碎하는 공통적인 행위로 표출되고 있어 이를 통한 개개 집단의 의례적 특징을 살펴보기는 어려웠다. 보다 자세한 시기별, 지역별 의례양상에 대한 검토는 후일을 기약하고자 한다. 앞으로 보다 면밀한 조사와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분묘를 둘러싼 당시의 意識과 儀式에 보다 가깝게 접근하게 되기를 기대한다.